

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. 7. 20.

경 제 도 시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6명(강한곤, 이선주, 김장관, 도하석, 고명욱)
- 발의일자: 2023. 7. 7.
- 회부일자: 2023. 7. 7.
- 상정 및 의결: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(2023. 7. 20.)

2. 제안이유

-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4조)
- 공공건축물의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권고와 충돌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예산조치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7. 7. ~ 7. 17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투명 방음벽 등 인공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.
- 국립생태원에 의하면 연간 8백만 마리, 매일 2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인공 구조물과의 충돌로 폐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, 우리 구 관내도 중부 내륙지선고속도로 및 상화로, 대명천로 등 일부 구간의 방음벽이 투명방음벽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부벽면을 유리로 장식한 고층 건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-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하여 야생조류 보호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 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